中, 티베트불교 환생자 제도에 개입 시도 '논란'

박영빈 객원기자

9월 3일 비공식 세미나 개최
중국 종교사업, 정책 이행 요구
티베트불교계 반발 · 비판 이어져
달라이라마 "정치적 이용 불가"

티베트불교에 다방면의 규제를 가하는 중국이 최근 티베트불교 고유의 환생자 제도 개입을 시사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논란이다.

중국의 온라인 티베트 뉴스 서비스 '중국서장망(中國西藏網)'은 9월 3일 간쑤성 란저우에서 열린 '티베트불교 환생자를 공인하는 방식' 의제의 세미나에 대해 보도했다.

세미나에는 중국 종교 전문가, 정부당국자, 티베트 자치구 불교 지도자 등 50명 이상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옛 티베트 지역인 암도, 캄을 포함해 티베트 자치구, 쓰촨성, 간쑤성 등 티베트불교 영향권 지역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

세미나의 공식 주제는 '티베트불교 환생자 제도의 역사적 성립과 정책법규 연찬 토론'이었다. 중국정부가 공인한 티베트불교 출가자 교육·양성 시설 중국고급티베트불교대학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의 연설과 토론의 세부 내용은 비공개됐다.

공식적인 세미나 보도자료를 발표한 서장망 측은 "세미나에서는 티베트불교계가 시진핑 사상에 따른 공산당의 종교사업 및 티베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며 "세미나를 계기로 티베트불교의 건강한 전파와 중국 사회주의와 양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7년 티베트불교 고유의 환생자 제도에 있어 환생한 불교스승은 반드시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규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환생자를 찾아내고 공인하는 전반적인 체계에 중국당국이 개입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란저우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중국불교계 인사들. 사진출처=중국서장망

세미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에 소재한 티베트 망명정부와 해외 각국의 티베트 불교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망명정부 측은 "이런 움직임은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불교의 중심인물 달라이라마의 권위에 대한 정통성을 선점하려는 시도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외신들은 "세미나에서 현 14대 달라이라마가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 세미나는 분명히 현 달라이라마와 그의 환생에 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도의 티베트 전문매체 '티베탄 리뷰(Tibetan Review)'는 "현 달라이라마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세납 90세가 된 후, 즉 내년 7월 6일 이후에 자신의 환생을 수색하고 인정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최근 달라이라마의 무릎수술 등 건강 문제가 이어지자 중국당국이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지난 2011년 성명을 통해 "나의 환생자에 대한 수색과 선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달라이라마의 공식 사무국인 간댄포당의 관련 임원에게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환생자에 대한 명확한 서면 지침을 남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누구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달라이라마 후보자를 인정하거나 공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印배우 가간 말릭, 스리랑카 불교 순례 나서

9월 4일 불교순례자 65명과 함께
"전 세계 불교 홍포에 앞장설 것"

183cm의 훤칠한 키에 에메랄드 색깔의 꾸르타(kurta, 인도 전통 의상)를 입은 한 남성이 스리랑카 도심의 한 호텔 로비에 나타났다. 마치 스크린을 뚫고 나온 듯한 차림새에 여유 넘치는 얼굴. 강력한 왕족의 기운을 내뿜는 그는 65명의 순례자를 이끌고 스리랑카의 불교 성지를 순례에 나선 인도의 영화배우 가간 말릭(Gagan Malik)이다.

영화 '고타마 싯다르타 부처님(Sri Siddhartha Gautama)'의 싯다르타 왕자로 등장했던 가간 말릭이 '포교자'로서 불교순례자 65명과 함께 스리랑카 순례를 시작했다.

스리랑카 온라인 매체 '이코노미넥스트(EconomyNext)'는 지난 9월 4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콜롬보의 시나몬 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말릭과 함께 한 인터뷰를 게재했다. 말릭은 인터뷰에서 "2013년 싯다르타 왕자를 연기하며 처음 접한 불교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무상과 열반에 대한 교훈을 접하고 보물 같은 지혜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말릭은 불교가 자신을 자비롭고 차분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음을 챙기면 고통에 맞설 힘이 생기고 인생의 어려움이 쉽게 지나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백만의 불교도와 불교유적이 있는 인도는 불교 순례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인도의 불교를 전 세계에 알리고 스리랑카와 우호 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스리랑카의 불교 성지를 순례에 나선 인도 영화 배우 가간 말릭. 사진출처=이코노미넥스트

말릭은 깊이 있는 불교 공부를 위해 2014년 포손 포야(Poson Poya, 스리랑카에 불교가 전해진 날)에 스리랑카 미힌탈레(Mihintale)에서 수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그는 불교를 전파하는 비영리재단 '가간 말릭 재단(Gagan Malik Foundation)'을 설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나눔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재단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과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앞장선다.

같은 날, 말릭과 순례단은 콜롬보의 템플 트리 리조트에서 디네시 구나와르데나(Dinesh Gunawardena) 스리랑카 총리를 만났다. 구나와르데 총리는 "불교는 인도와 스리랑카를 묶는 가장 강한 유대감"이라며 "인도 아쇼카 왕과 그의 아들 아라핫 마힌다가 스리랑카에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전해준 데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례단의 샤시칸트 완카데(Shashikant Wankhade) 씨는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에서 웅장한 차이티야(Caitiya, 스투파의 시초)를 보고, 신성한 스리마하보디(Sri Maha Bodhi, 인도 보드가야에서 스리랑카로 이운한 보리수 나무)를 숭배했다"며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도 스리랑카 불교 순례를 하라고 권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니타 프라모드(Anita Pramod) 씨도 감상을 남겼다. 아니타는 "아름다운 도시 캔디(Kandy)의 사원을 방문해 기억에 남는 경험을 했다"며 "두 자녀와 함께 아름다운 나라의 도시를 보고 경함할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낙시터에서 발견된 '당나라 불두'
〈佛頭〉

허난성 뤄양시서 주민신고
룽먼석굴 유실 불상 추정

고대 중국의 수도로 유명한 허난성 뤄양시(洛陽市) 강가에서 당나라 시기 불두(佛頭)가 발견돼 화제다. 지역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이 불두는 룽먼석굴(龍門石窟)에서 유실된 불상의 일부로 추정 중이다. '베이징청년보'를 비롯한 중국 현지 언론들은 지난 9월 1일 이와 같은 소식을 보도했다.

뤄양시 주민 마씨는 8월 30일 친구 2명과 함께 지역 낙시터 이허(伊河)에 갔다가 불두를 발견했다. 낙시 지점은 룽먼석굴로부터 약 1km 떨어진 강의 하류였다.

지역 토박이로 룽먼석굴을 자주 방문하는 마씨는 "낚시 도중 물이끼가 잔뜩 낀 불두처럼 보이는 돌이 보였다"며 "이끼를 물로 씻어내자 얼굴과 명문이 제대로 보였는데, 룽먼석굴의 불상들과 매우 유사했다"고 말했다.

불두로 보이는 돌이 문화재라고 판단한 마씨와 친구들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동행한 전문가들은 현장 기초조사에서 해당 불두가 당대(618~907년)에 제작됐다고 추정했다. 뒤이어 불두를 인수받은 룽먼석굴연구원 측은 긴급조사를 거친 뒤 불두가 당대 유물임을 확인했다.


이허 강변에서 발견된 당대 석조 불두. 사진출처=베이징청년보

불두의 높이는 약 60cm, 무게는 15kg로 목부분에 절단흔이 남아있다. 룽먼석굴연구원 역사인문연구센터 로웨이 주임은 "이허는 고대에 수량이 비교적 많아 룽먼석굴에 홍수 피해를 자주 입혔다"며 "이 불두의 경우 홍수 피해로 떨어진 불두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로 주임은 "당대 기록에 따르면 개원 10년(732년) 2월 이허가 범람해 룽먼의 천축사와 봉선사를 파괴했다고 한다. 이 영향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국가유산수리기능
목조각 제 1728호
소 목 제 5972호
www.dongbangart.co.kr

동방예술원

사찰 내부불사 _ 수미단, 닫집, 목창호, 인등장, 현판, 주련

전통 꽃살창호 및 각종 한식창호 제작



동방조형예술원 489-30-01174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여양1로 612-18 010-7581-1010